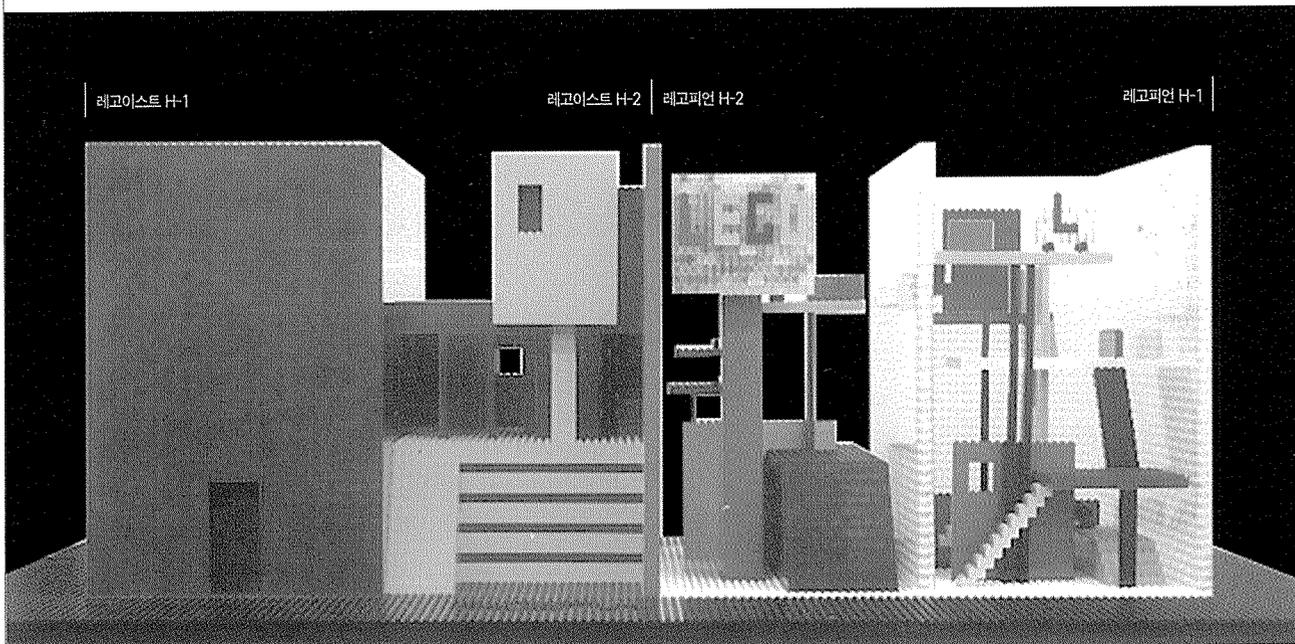


레고이스트의 집과 레고피언의 집 Legoist's House and Legopian's House

김승희 / (주)경영위치 건축사사무소
by Kim Seung-Hoy

이 프로젝트는 지난 구월 동경에서 열린 '건축가와 레고' 라는 전시회에 출품된 작업이다. '미래의 주거' 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기획되었고, 레고의 표준블록들만 사용해 만들어야 하는 조건이 주어졌다. 대중들이 건축을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전시회였던 만큼, 제작의도를 관람객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작품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관심있게 들여다볼 사람들을 위해서는 건축적인 동화를 들려주고 싶었다. 완성된 모습보다는 만들거나 부수는 과정이 보다 의미있는 레고의 특성과 '레고' 라는 재료와 구법이 내포하고 있는 근대적 정신의 한계를 음미하면서, 우리의 미래주거에 대한 논의를 담고자 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화를 통해 전개되었고, 그 우화의 주인공은 가상의 레고시티에 사는 레고맨(LEGO-MAN)들로 설정되었다. 레고이스트(LEGOIST)와 레고피언(LEGOPIAN)이라는 두 극단적인 레고맨의 집짓기를 통해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속된 오래된 미래이며, 그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지금까지 간직해온 우리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테크놀로지와의 공명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다.



어떤 우화 -

레고시티(LEGO-CITY), 그리고 레고리스트(LEGOIST)와 레고피언(LEGOPIAN)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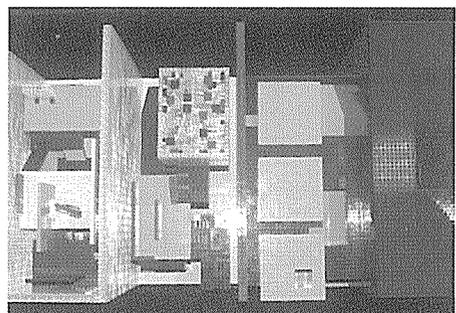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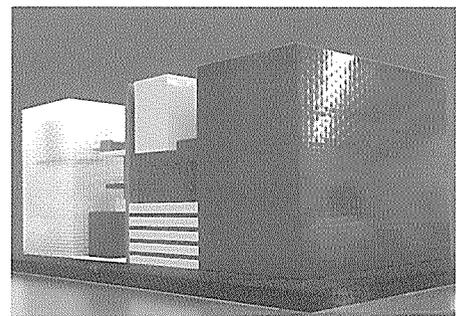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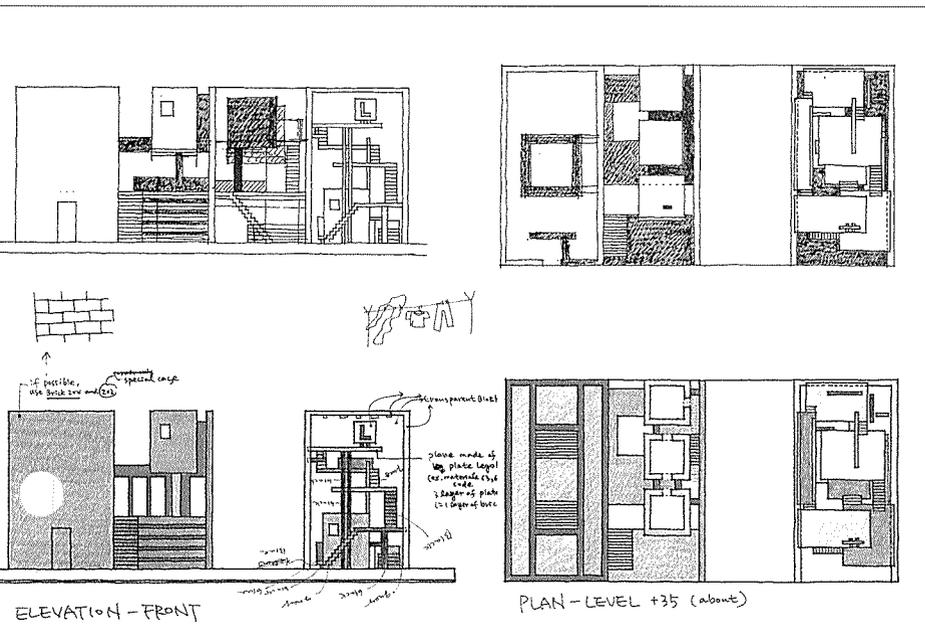
잘 알려진 대로 레고맨(LEGO-MAN)들의 생활은 계속해서 건설하고 부수는 일로 점철되어있다. 그것은 20세기의 인류, 특히 한국인의 생활과 비슷하다. 무엇이든 끊임없이 건설하고 싶어하는 레고맨들의 원초적 욕구때라 도시의 시스템이 결정되었다. 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각각의 레고맨들이 소유한 하나의 필지를 다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인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위한 부분과 앞으로 살집을 위해 공사하기 위한 부분으로 구별된다. 공사중인 집이 완성되면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을 부수고 새로운 건설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레고맨들에게는 매우 적합하고 편리한 시스템이다. 그밖에 중요한 건설 규율을 열거하자면 직교좌표를 지켜야하고, 반드시 표준블럭을 사용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접착제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건설규범을 위반하면 죄의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는 레고맨들에게 대단한 고통일 뿐 아니라 동시에 무한한 수치이다.

레고시티(LEGO-CITY)를 이루는 체계의 뿌리에 대한 의문은 지적 호기심이 많은 이들에게는 커다란 관심거리이자 논쟁거리이다. 어떤 이는 하늘은 둥글고 세상은 사각형으로 이해한 고대인들의 우주관에 맞추어 도시를

사각 또는 직육면체의 체계로 발전시켰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며 - 여러 도형 중 사각형태가 서로 맞물렸을 때 빈틈을 만들지 않은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말하는 사람 중에는 직각 보행에 익숙한 군인출신이 레고맨의 정신적 원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그 증거로 정복도시의 형태가 직교좌표였다는 제법 역사적인 알리바이를 대기도 한다.

레고시티가 생겨난 것이 아주 최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로부터 레고시티의 원류를 대는 것은 레고맨 자신의 존재근거를 보다 근원적인데 기대보려는 가없는 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 학설 중에 가장 그럴듯한 것은 레고시티의 핵심은 모든 사물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레고블럭)로 환원될 수 있고, 반대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어떠한 형상도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이며 레고의 탄생 동기라는 주장이다.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성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파괴할 수 있는 세계가 레고시티이지만 동시에 역사도, 신화도, 낭만도 사라진 세계에 오직 생산과 파괴를 위한 메커니즘 자체가 레고시티이며, 그 속의 레고맨들은 저마다의 꿈과 욕망을 갖고 살고있지만 결국 그들은 레고시티의 획일적인 메커니즘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설명은 제법 그럴듯하지만, 오히려 그럴듯하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에 왠지 정답이 아니라는 느낌도 든다.

레고시티의 근원이 어떻든 레고시티에 대해 이야기하게된 동기가 레고시티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두 레



고맨, 레고이스트(LEGOIST)와 레고피언(LEGOPIAN)의 집을 소개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그리고 지면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은 고려할 때 더 이상 그 유명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미룰 수 없다.

레고맨의 집들은 매우 다양하게, 또는 제멋대로 지어지고 있는데 그 다채로움이란 레고시티의 큰 자랑이다. 비슷한 수준의 기술과 동일한 제약을 갖고 집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동물원의 모습처럼 저마다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레고시티의 시민들에게 무한한 경외감을 느끼게된다. 그러한 레고시티의 다채로운 풍경 속에서 유난히 레고이스트와 레고피언의 집이 화제가 된 이유는 지독히 극단적인 성격의 두 레고맨이 완성한 지극히 극단적인 집의 모습 때문인데, 더구나 둘이 서로의 옆집에 살고 있다는 우연은 이 사건에 신화적인 성격마저 부여한다.

먼저 레고이스트(LEGOIST)의 특징을 말하자면 에고이스트(EGOIST)가 그렇듯이 그 자신의 세계에만 관심을 가질 뿐 다른 레고맨들과의 관계에는 무관심하다. 다만 자신의 구원을 위해 '우주의 축'이라고 불리우는 절대적 존재와 관계를 갖기 원할 뿐이다. 자기자신의 존재를 헛된 시대의 흐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해탈하기를 바라는 그는 레고시티에서 '낭만의 섬에 유배된 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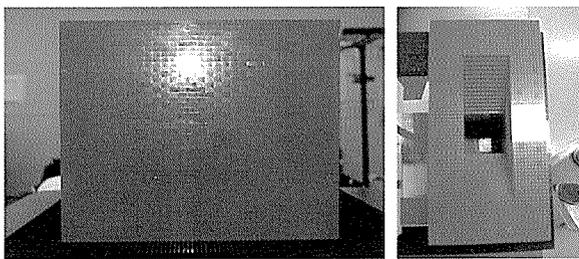
레고이스트와 이웃해 살고 있는 레고피언(LEGOPIAN)은 유토피안(UTOPIAN)과 같이 그가 사는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며, 서로의 이기적인 벽을 허물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이제까지 레고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

었던 새로운 형식의 집과 도시를 창조하고 그 속에서 모두가 해방된 자유와 평등함을 누리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정해진 범위에서 충실히 생활하는 보통의 레고맨들은 그에게 '경계와 분수를 모르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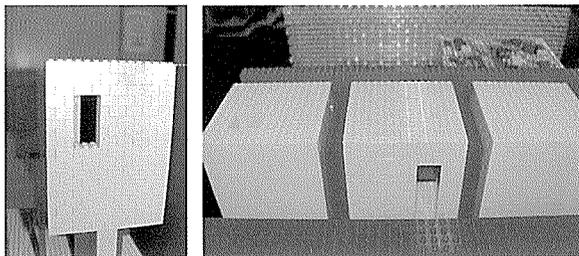
레고이스트(LEGOIST)의 첫 집은 대단한 충격을 도시에 선사했는데 놀랍게도 그의 집은 빨강색만을 사용한 하나의 단순한 덩어리였다. 그 단순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력한 인상을 주었는데 그 집은 내부에 정사각형의 작은 중정을 두고, 외부는 입구 외에는 창문하나 없는 단순한 벽으로만 처리했다. 완강한 형태를 지닌 덕에 레고시티에 '붉은상자'는 유명해 졌지만, 그 단조로운 공간은 레고이스트의 삶의 한 부분만 담을 것이라는 것이 모든 이들의 염려였다. 그러나 레고시티는 영원과 초월을 용납하지 않는 곳임을 누구나 알기에 그 불가능한 도전의 비극이 모두에게 감동을 준 것은 사실이다.

레고피언(LEGOPIAN)의 첫 번째 집 역시 만만치 않은 놀라움을 주었는데 그 집의 정면은 완전히 개방되어있고, 인접대지에 설치하는 담조차 투명한 블록을 사용해 레고피언의 집은 그의 말대로 세계로 열린 집이었다. 게다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집은 계단과 기둥과 벽이 다 채롭게 놓여있으면서 공간은 계속 흐르도록 구성되었다. 그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동안 누구나 움직임에 대한 충동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다는 소감을 말하면서 레고피언이 겪게될 일상의 고달픔을 걱정했다. 그러나 온갖 종류의 색과 모양의 블록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함과 정의되지 않은 공간이 이루는 다이내믹한 흐름 그리고 레고테크놀러지가 만들어낸 레고비전과 같은 여러 장치들은 레고시티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 했다.

레고이스트(LEGOIST)는 그의 첫 번째 집이 가진 한계를 생활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그 집이 강요하는 단조로운 삶은 그에게 새로운 욕구를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개방적인 소통과 풍부한 삶을 담아낼 다양한 공간이었다. 그는 새로운 집에 노란색을 붉은 색과 함께 사용하는 한편 중정과 아울러 여러가지 마당을 만들어 그가 추구했던 중심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주위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마당을 향유할 수 있게 했다. 정의된 공간에 대한 그의 집착은 여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듯 몇 개의 '방'을 마련했다. 창이 하늘을 향한 방, 도시를 향한 방, 마당을 향한 방 등. 모두 세 개의 방이 마련되어 우주의 축과 교감하면서도 동시에 그 자신과 레고시티와 교감하는 장소를 마련



레고이스트 H-1



레고이스트 H-2

할 수 있었다. 레고리스트의 두 번째 집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데 비로소 삶이 녹아있는 집이 되었다는 이도 있고, 진실해졌지만 진리와는 멀어졌다는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이도 있고, 레고피언과 옆집에 살면서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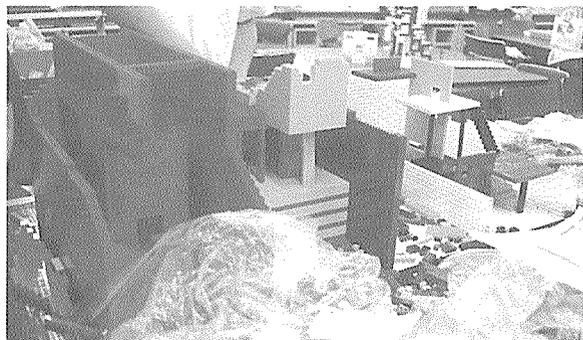
이제 끝으로 레고피언(LEGOPIAN)의 두 번째 집에 대해 소개할 차례이다. 레고피언은 두 번째 집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와 연결된 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레고리스트라면 몰라도 레고피언이 정의된 공간인 '방'을 만들다니...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방은 레고피언이 레고리스트에게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수근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잘못된 짐작이었음이 드러났다. 레고리스트는 그가 현실에서 그의 유토피아를 더 이상 건설할 수 없음을 깨닫고 새로운 세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사이버스페이스에 탐닉하기 위해서 주위와 격리된 '방'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 방은 온갖 이미지의 신호들로 가득한 장소로 투명함 속에 온갖 색채의 파편들이 혼합된 이미지의 덩어리이다. 레고피언의 첫 번째 집에 마련되었던 레고비전(LEGOVISION)은 텔레비전이 그렇듯이 레고맨이 그것을 바라보는 관계였다면 레고피언의 두 번째 집에서는 레고비전이 오브제가 아니라 하나의 '방'이 되어 레고피언을 그 속에 가두는 그물이 되어버렸다. 이제 어쩌면 레고시티에서 레고피언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을런지도 모른다.

레고시티의 화제거리였던 레고리스트와 레고피언의 집은 첫 번째 집에서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두 번째 집에서는 조금씩 서로를 닮은 모습이다. 그러나 닮아 보이는 그 형태 뒤에 숨어있는 커다란 차이는 닿을 수 없는 지점으로 서로를 밀어 넣는다. 레고시티의 '미래'는 레고리스트와 레고피언의 집이 그랬듯 '서로에 대한 차이와 간격', 그리고 그 '간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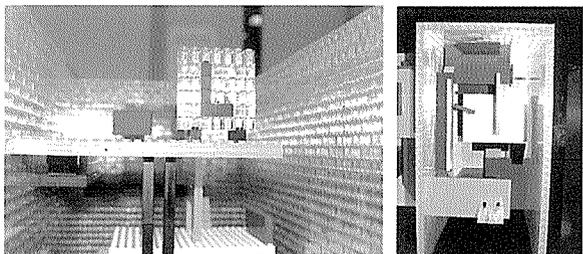
아! 지금 막 들어온 소식. 레고피언이 엘리베이터와 레고비전의 방안 있었던 그의 집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몸이 요구하는 바, 먹고 자고 배설하기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공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방금 전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할는지 모른다.

다음: 그들이 서로 세계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신체라는 공통된 한계와, 그리고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비롯될 사유들이 그들에게 교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것이다. '서로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세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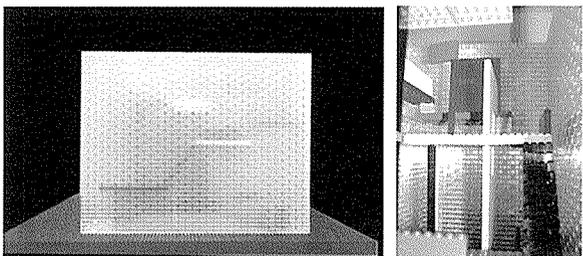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속에서 그들의 미래는 다채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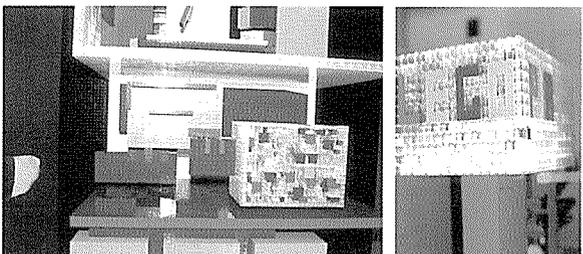
작업장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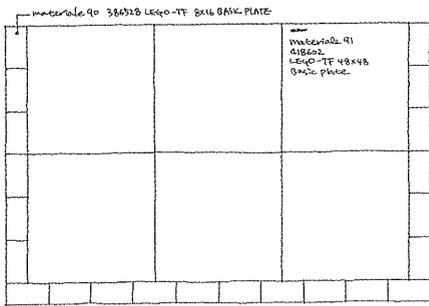
레고피언 H-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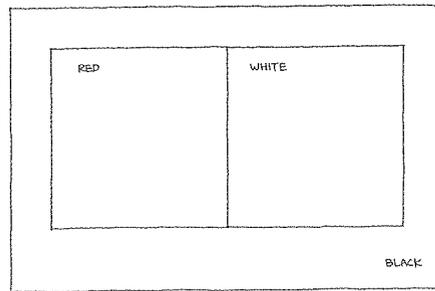
레고피언 H-2



레고피언 H-2



PLAN - BASE PLATE Level-3



PLAN - BUILDING BASE: Level ±0 ~ Level-3

